BASF, 새로운 UV-A 흡수제 개발

Uvinul® A Plus, 400nm 파장 흡수 … 다른 유·무기질과 혼합 용이

BASF가 새로운 UV-A 흡수제 Uvinul® A Plus를 출시해 선크림을 비롯한 화장품 생산기업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BASF에 따르면, Uvinul® A Plus는 UV-A-1 범위인 400nm 파장내의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으며 광안정성이 뛰어나 오랜시간 동안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다른 유기 또는 무기 UV Filter와 잘 혼합되기 때문에 선크림 및 기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생산하는데 용이하다.

BASF는 세계 최대 화장품용 UV 흡수제 생산기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화장품용 UV-A 및 UV-B Filter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 선크림 시장은 2002년 약 35억유로에 달했으며 연평균 약 3% 성장하고 있는데, 자외선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선크림 수요가 꾸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SPF(Sun Protection Factor) 지수가 높은 제품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자외선 흡수제가 일반 선크림 뿐만 아니라 로션이나 색조화장품 등에도 사용되면서 자외선 흡수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계 화장품 시장은 몇몇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BASF의 자외선 흡수제 수요기업 8사가 전체 선케어(Sun Care)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김수진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